

檜淵書院의 立地環境과 風水論理

박정해*

■ 차례 ■

- I. 서론
- II. 한강 정구와 회연서원의 연혁
 - 1. 한강 정구의 학문세계와 풍수인식
 - 2. 회연서원의 연혁
- III. 회연서원 입지의 풍수분석
 - 1. 회연서원의 주산과 주룡
 - 2. 회연서원의 혈
 - 3. 회연서원의 물길
 - 4. 회연서원의 좌향
- IV. 회연서원의 입지환경과 풍수해석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강 정구의 학문세계와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고, 아울러 회연서원의 연혁도 살펴본다. 또한, 회연서원 입지에 나타난 풍수적 특징과 공간구성의 논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회연서원의 입지에 나타난 풍수적 특징을 형세적 관점과 이기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우리의 전통교육기관이자 학문탐구의 장이었던 서원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의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미 있는 입지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현대 교육기관 입지선정의 지침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회연서원의 입지선정과 공간구성은 풍수에 바탕을 두고 길지를 찾아 최대공약수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문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한적한 환경에 작은 집을 짓고 성리학의 이상향을 실천하고자 하였던 16세기 조선 유학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자의 풍수인식과 영향은 컸고, 무이구곡과 무이정사를 이상향으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회연서원을 통해 현실 속에 실천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한강 정구, 풍수, 회연서원, 주자, 공간구성

I. 서론

우리의 전통교육기관이자 학문탐구의 장이었던 서원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의미 있는 입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현대 교육기관 입지선정의 지침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조선중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서원은 차츰 그 위세를 높여갔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서원은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라는 철퇴를 맞고 휘철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8에 위치한 회연서원은 寒岡 鄭逵(1543-1620)의 학문을 길이 보전하고, 후학들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하였다. 회연서원은 檜淵草堂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생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서당이 사후에 서원으로 발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통은 비록 회연서원만이 아니고, 퇴계선생의 도산서원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연고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강학장소와 생가 혹은 묘지근처 등과 같이 중요하게 인연을 맺었던 곳에 건설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 차원에서 회연서원도 생전에 한강정구가 학생을 가르치던 회연초당 터에 건설한 것이다.

南冥 曹植과 退溪 李滉의 학문을 이어받아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강 정구의 학문 세계는 性理學과 禮學, 歷史, 傳記, 算數, 地理, 醫學, 兵陣, 風水, 文學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었다. 특히, 禮學에 밝은 모습을 보였는데, 『國朝寶鑑』에서도 그가 예학에 뛰어났다는 점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心經』²⁾을 깊이 연구하여 오늘날 한국 심학의 원천이자 상징이 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는 학자에 머물기보다는 관료로써 자신의 학문세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정구도 이와 같은 당시의 유학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성리학에 매진하던 정구는 관료의 길을 걸으면서도 현실정치에서 자신의 학문세계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현재 한강 정구의 학문 세계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연서원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한강 정구의 學問世界와 沿革을 간단히 살펴보고, 아울러 회연서원의 연혁도 살펴본다. 또한, 회연초당이었던 서원입지에 반영된 한강 정구의 풍수적 특징과 공간구성의 논리성을 살펴보고

1) 『國朝寶鑑』 卷26 선조조3, 선조13년(경진, 1580) 4월
 2) 『心經』은 朱子의 문인인 眞德秀가 편찬한 것으로 書·易·論語·中庸·大學·禮記·孟子 등 經書와 周濂溪의 通書에서 心性에 관한 격언들을 채취하고, 그 외에 程伊川·范蘭溪·朱晦菴의 箴과 銘을 채록하여 이를 心經이라 이름 짓고 앞에 贊을 붙였는데, 그 첫머리에 堯舜禹가 전한 16자로 만세심학의 연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3) 강예석, 「회연서원 강당 복원평면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한국건축역사학회, 1995.

자 한다. 특히 회연서원 입지에 나타난 풍수적 특징을 형세적 관점과 이기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회연서원 입지와 공간구성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회연서원관련 문헌자료의 부족은 연구의 한계성이지만 새롭게 밝혀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 셈이기도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회연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고, 이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원하는 과정은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기 마련으로 원래의 모습과 괴리감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입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건축의 입지선정은 풍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한 현실은 서원입지의 진면목을 살펴보는데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II. 한강 정구와 회연서원의 연혁

1. 한강 정구의 학문세계와 풍수인식

寒岡 鄭述의 본관은 淸州요 자는 道可이며, 호는 寒岡이다. 정구의 선대는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정구는 중종 38년(1543) 음력 7월 9일 子時에 鄭思中의 셋째 아들로 경북 성주군 대가면 사월리 현 칠봉리 유촌에서 태어난다. 한강 정구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경에는 한강 정구의 할아버지 鄭應祥이 金宏弼(1454-1504)의 사위인 관계로, 외가쪽에 정착한 정사중의 영향 때문이다.

한강 정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다고 하는데, 9살에 맞이한 부친의 사망은 큰 충격이었겠으나 학문 탐구를 통해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13세 때에 성주향교의 吳健에게 배운 『周易』을 바탕으로 학문적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특히, 退溪 李滉과 南冥 曹植이라는 걸출한 스승을 통해 학문적 기개가 돋보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강 정구의 학문적 특징은 性理學과 禮學 그리고 經世論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禮學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六禮⁴⁾ 가운데 四禮를 더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강정구의 학문세계는 주자의 학문에 전적으로 천착하기 보다는, 관념론보다는 실제론, 理氣論보다는 心性論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성리학과 예학은 전통적인 嶺南學風을 계승하였으며, 이황과 조식의 학풍 가운데 조식의 학맥으로부터 영향을 더 받은 듯하다. 그는 주자나 李滉과 같이 性卽理의 입장에서 인간본성을 天理와 보편이성으로 보았으며, 理尊氣卑를 인정함으로써 윤리적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학문적 관심이 禮學에 쏠린 것은 이와 같은 사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특히, 『五先生禮說分類』·『禮記喪禮分類』·『家禮集覽補註』·『五服沿革圖』·『深衣制度』 등은 예학에 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연구가 나타나 있는 저술들이다.

또한, 한강 정구는 經世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昌山志』를 비롯한 각 지방의 地志類와 의학 관계의 『醫眼集占』, 『廣嗣續集』 등에는 구체적인 경세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의 경세론은 許穆 등 近畿學派에 속한 학자에게 계승되어, 李瀾·安鼎福·丁若鏞 등에 의해서 더욱 심화·발전되었다. 경세론 연구에 대한 저술에는 『古今忠謀』, 『古今

4) 冠·婚·喪·祭·鄉·相見

治亂提要』 등과 같이 정치의 규범과 득실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파악하려 한 것이 있고, 『古今人物志』, 『古今名宦錄』 등과 같이 인물의 傳記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보이려 한 것이 있다.

한편, 한강 정구의 풍수인식은 몇 가지의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는 주로 성리학탐구에 집중하였지만 풍수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풍수이론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모습조차도 이해하고 있었다.⁵⁾ 그렇지만 그가 부정하고자 하였던 것은 得水와 破口방향에 따른 吉凶論과 年運에 따른 相剋論을 수용하지는 않았다.⁶⁾ 특히, 당시에 유행하던 胡舜申의 地理新法 핵심논리가 ‘길한 방향에서 득수하고 흉한방향으로 파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術法에 대한 반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집착하여 포천 신평에 잡았던 의인왕후 박씨의 능지를 부정하는 풍수가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말 것을 상소한⁷⁾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또한 年運에 따라 좌향의 선택이 제한되는 풍수술법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풍수가 갖는 논리성과 합리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가 입지선택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가 입지를 선정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을 살펴보면 모두 풍수 길지에 자리하였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회연초당의 입지는 풍수논리에 부합하는 모습

5) 『寒岡集』 卷2 「疎」 請勿改卜山陵疏 庚子：蓋臣嘗聞地理之家其所以爲說者有二 相資主拱揖之勢 定龜雀龍虎之形 審聚散離合之情 求融結關鎖之密 此山家之所宗也 用八卦干支之數 寓推排參錯之妙 建方位向背之名 著逆順吉凶之象 此又山家之所參取也.

6) 『寒岡集』 卷4 「書」 答金邦良德民：山運難處之教 謹奉承悉 但鄙生平生不能深信其說 前於賤家遭喪之日 亦不能用焉 是以 今亦聞人水破之說 年剋之論 皆不能是之.

7) 『宣祖實錄』 卷129, 33년 9월 4일(갑진)；『寒岡集』 卷2 「疎」 請勿改卜山陵疏 庚子.

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3장에서 살펴본다.

2. 회연서원의 연혁

회연서원은 선조 16년(1583) 한강정구가 제자를 기르기 위해 건립한 회연초당에서 비롯되었다. 한강 정구의 학문을 기리기 위한 회연서원은 회연초당이 입지하던 자리에 인조 5년(1627) 지방 유림들에 의해 세워진다.



<그림 1> 회연서원의 현판

회연서원은 숙종 16년(1690) 사액을 받았으나, 고종 5년(186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다.⁸⁾ 이후 1974년에 복원되었고 1976년에 東齋와 西齋를 신축하였다. 현재 회연서원은 祠宇와 講堂, 東齋, 西齋, 內三門, 外三門, 夙夜齋, 庫舍, 別祠등이 있다. 祠宇는 享祀를 지내는 3칸 규모의 건물이며, 鄭述와 李潤雨(1569~1634)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당은 원내의 모든 행사와 유림 회합 및 학문토론의 장소인데, 5칸 규모로 중앙 3칸은 마루이며 좌우측은 夾室로 구성되어 있다. 동재와 서재는 수학하는 유생들이 거처하는 각 3칸 규모의 건물이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中丁日에 향사

8) 이러한 사유로 인해 회연서원의 연혁과 관련한 자료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건립과 사액 받은 연대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한편, 도한기의 『읍지잡기』에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회연서원도 철폐되었으나, 강당만은 관에서 사용키 위해 훼손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를 지내고 있으며, 소장 전적으로는 정구의 문집판인 『心經發揮』외에 수십 권이 있다.

특히 景晦堂은 회연서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의 건물로, 이마에 ‘회연서원’이라는 현판을 붙이



<그림 2> 옥설헌 편액

고 오랜 풍상을 곱게 견딘 기품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 강당 안 벽에는 ‘玉雪軒’이라 쓴 편액⁹⁾과 眉叟 許穆의 빼어난 글씨로 쓴 ‘望雲巖’이라 적힌 편액이 걸려 있다.¹⁰⁾ 왼쪽 측실 옆 퇴보 위에도 허목이 쓴 ‘不槐寢’이라 적힌 편액이 또 하나 걸려 있다. ‘不槐寢’이란 ‘부끄러움 없는 잠자리’라는 뜻으로, 부끄러움 없는 하루를 보내고 드는 잠자리는 아마 깃털처럼 가벼웠을 것이며, 당시 선비가 바라는 하루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한편, 한강 정구가 제향된 서원 목록을 살펴보면, 회연서원을 비롯하여, 川谷書院,¹¹⁾ 泗陽書院,¹²⁾ 研經書院,¹³⁾ 道東書院,¹⁴⁾ 檜原書院,¹⁵⁾ 冠山書院,¹⁶⁾ 般龜書院,¹⁷⁾ 道林書院,¹⁸⁾ 道淵書院,¹⁹⁾ 雲谷書院,²⁰⁾ 三陽書院,²¹⁾ 道源書

9) 이 글씨를 쓴 분의 이름은 알 수 없고, 단지 字를 廣孝라 사용하는 분의 글씨이다.
 10) 미수 허목의 글씨가 이곳에 많은 것은, 미수가 거창 현감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와 한강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11) 천곡서원은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해평리에 있었던 서원이다.
 12) 사양서원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에 있는 서원이다. 효종 2년(1651)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정구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3) 연경서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에 있었던 서원이다.
 14) 도동서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서리에 있었던 서원이다.
 15) 회원서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었던 서원이다.
 16) 관산서원은 경상남도 창원군 고암면 우천리에 있었던 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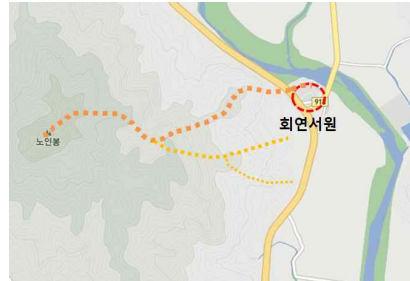
院,²²⁾ 景德祠宇, 鶴翎書院,²³⁾ 龍泉書院²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한강 정구가 많은 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퇴계와 남명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학문세계를 구축하였고 평생을 학문탐구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Ⅲ. 회연서원 입지의 풍수분석

1. 회연서원의 주산과 주룡

회연서원은 <그림 3>과 같이 서원우측에 우뚝 솟은 노인봉(400m)에서 출맥하여 서원 뒤편에 이르러 행룡을 멈춘 작은 봉우리에 의지하고 있다.

한강 정구는 회연초당을 묘사한 시에서 서원 뒤편의 작은 봉우리를



<그림 3> 회연서원의 지형도
(출처 : 다음지도에 추가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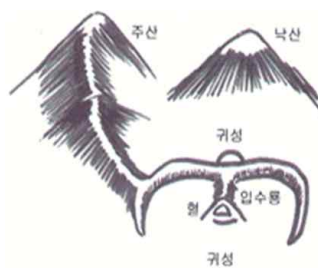
- 17) 반구서원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있는 서원이다.
- 18) 도림서원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에 있었던 서원이다.
- 19) 도연서원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에 있는 서원이다.
- 20) 운곡서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에 있는 서원이다.
- 21) 삼양서원은 충남 옥천에 위치한 서원이다.
- 22) 도원서원은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에 있는 서원이다.
- 23) 학령서원은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하부리 용천동에 있었던 서원이다.
- 24) 용천서원은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에 위치한 서원이다.

‘변변치 않다’고 노래하였다.

변변찮은 산 앞에 자그마한 초당이라
동산 가득 매화 국화 해마다 늘어났다
게다가 구름 냇물 그림같이 꾸며 주니
세상에서 내 생애 누구보다 호사로워

小小山前小小家
滿園梅菊逐年加
更教雲水粧如畫
舉世生涯我最奢²⁵⁾

한강 정구가 ‘변변치 않다’고 표현한 봉우리는 비록 높지 않고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모습이다. 먼저 회연서원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수이론에 충실한 모습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귀성과 낙산
(출처 : www.poongsoojiri.co.kr)

첫째, 회연서원에 정기를 제공하는

入首龍은 橫龍入首하는 모습이다. 회연서원의 주룡은 길게 행룡하다가 대가천을 만나 멈추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맥을 주룡의 행룡 방향과 직각으로 뺏어 내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풍수에서는 橫龍入首라 한다.

橫龍入首의 경우에는 <그림 4>와 같이 뒤를 받쳐주는 鬼星과 樂山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데, 鬼星은 入首龍의 반대측 주룡에 붙어 있는 작은 地脚으로 용과 혈을 지탱해주고 주룡의 기운을 혈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樂山은 橫龍入首하는 용의 뒤를 받쳐 주는 산으로 혈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혈의 허함을 보충해주며 생기를 보호하는

25) 『寒岡集』 卷1 「詩」 題檜淵草堂.

혈의 배개와 같은 산이다. 이러한 귀성과 낙산은 횡룡입수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로써 그 의미와 역할은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서원에 정기를 제공하는 노인봉과 뒤를 받쳐주는 작은 봉우리는 각각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구분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노인봉을 主山이라 한다면 작은 봉우리는 玄武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산과 현무봉은 경우에 따라서 주산과 현무봉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달리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긴 배경에는 주산과 현무봉의 개념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주산은 太祖山에서 출맥한 용이 행룡 과정에 中祖山과 小祖山을 일으키는데, 이때 소조산을 주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반면에 玄武峯은 북쪽의 玄武와 남쪽의 朱雀, 동쪽의 靑龍과 서쪽의 白虎와 같이 각각의 방위를 책임진 四靈概念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산과 현무봉과 같은 용어가 탄생하였으나, 이들의 역할과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 정리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穴處의 뒤를 받쳐주고 정기를 제공하는 산이 주산인지, 혈처에 정기를 제공하는 산이 현무봉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산과 현무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풍수는 개념과 역할에 대한 정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해야 할 연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풍수이론은 자연현상을 깊이 살펴보고 정리한 것으로 단순하게 길흉화복론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특징적인 모습을 세밀히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풍수논리가 자연과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풍수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풍수이론서와 함께 현장답사를 통한 실제적인 현상을 살펴보아야 하며, 다양한 주변학문과의 연계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연서원의 혈

우주의 근원은 자연이다. 자연은 우주를 만들고, 우주는 만물을 만든다는 논리를 『道德經』에서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²⁶⁾이라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도가사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풍수는 자연에 바탕을 둔 지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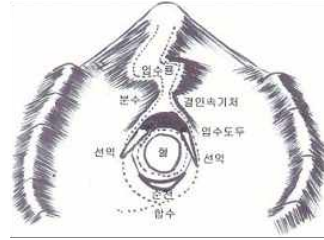


<그림 5> 회연서원의 강당인 경회당

이고 환경학으로,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심리학이라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이 가진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 자리하여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만들었고 자연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간직한다. 따라서 자연외적인 요인을 찾을 수 없으며 발복론만으로 재단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물론 자연이 만들었고 자연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셈이다. 이를 통해 자연이 가진 다양한 장점을 제시한 것으로, 혈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지만 여러 조건요소의 충족을 요구하는데, 먼저 정기를 전달하는 주산과 주룡이 필요하다. 또한, 좌우측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좌청룡과 우백호 그리고 전면의 시각적

26) 『道德經』 25장

인 효과와 함께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案山을 필요로 한다. 그 외에도 음양의 조화를 위해 전면에는 明堂水가 필요하다.



<그림 6> 혈의 구성요건
(출처 : www.poongsoojiri.org)

혈은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룡의 행룡이 멈춰야 하고 肌附하고 鋪氈하는 형상을 갖춰야 한다. 그 외에도 結咽束氣와 入首倒頭, 蟬翼, 龍唇과 같은 穴의 기본 모습도 가져야 한다. 또한 혈처에서 穴土가 나와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여기에 혈은 정밀함을 요구하는데, 주자도 「山陵議狀」에서 “소위 정혈의 법이란 침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써 스스로 일정한 혈의 위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터럭만큼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²⁷⁾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간직한 혈처에는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물을 입지시키는 것이 풍수에 입각한 공간 構成論이다. 따라서 혈처를 알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으며, 핵심건축물을 통해 혈처를 알 수 있는 상관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원의 지향점은 혈처에 배치된 건축물을 통해 확인가능한데, 회연서원의 경우에는 강당을 혈처에 배치하였다. 이는 회연서원이 선현제향보다는 학문탐구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원은 제향중심의 서원과 강학중심의 서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혈처에 지향하는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즉, 제향중심 서원은

27) 『朱文公文集』 卷15 「山陵議狀」: 所謂正穴之法譬如 鍼灸自有一定之穴 而不可有毫釐之差 誠確論也.

사당을 혈처에 배치하였다면, 강학중심 서원은 강당을 혈처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회연서원은 강학중심서원으로써 혈처에 강당인 景晦堂을 입지시켰던 것이다.

3. 회연서원의 물길

물은 순환을 통해 실천적인 모습을 현실 속에 드러내게 된다. 즉,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주변 환경요인들과 수많은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풍수라는 하나의 논리 속에서 객관화하



<그림 7> 회연서원 현무봉에서 바라본 대가천

는 방편의 하나로 형세적 관점을 활용하였다. 즉, 五行을 통해 물길의 모습을 정립하였고, 環抱와 反背라는 이분법적인 길흉론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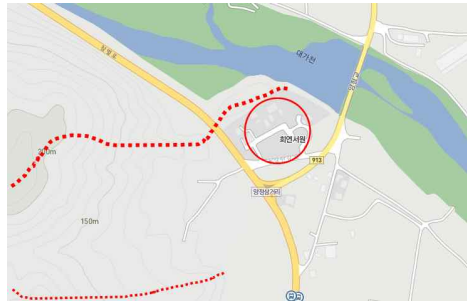
또한, 각종 풍수서는 물 흐름의 속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머뭇머뭇 거리며 느리게 지나가야 生氣가 보존된다는 것이다. 이를 『雪心賦』는 물의 흐름이 交²⁸⁾鎖²⁹⁾織³⁰⁾結³¹⁾해야 하고, 穿³²⁾割³³⁾箭³⁴⁾射³⁵⁾는

28) 交는 용과 혈의 좌우에서 흘러나온 모든 물이 혈 앞 내외명당에서 서로 만나 交流하는 것을 말한다.

29) 鎖는 수구처에 捍門, 華表, 北辰, 羅星 등 水口砂가 있어 마치 보국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 같이 좁고 조밀한 수구, 즉 關鎖를 말한다.

30) 織은 원진수 및 내당수가 구불구불하게 之玄字로 굴곡을 이루면서 흐르는 것으로 그 형세가 마치 베틀에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베를 짜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피해야 한다³⁶⁾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과 물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징적인 모습조차도 상당히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그림 8> 회연서원과 대가천
(출처 : 다음지도에 추가 작도)

회연서원의 물길은 대가천으로 <그림 8>과 같이 회연서원의 뒤를 돌아 옆쪽으로 흘러가는데, 물길은 크고 넓지만 느린 속도로 천천히 흐르는 모습이다. 또한, 대가천은 회연서원을 완벽하게 환포하는 형상으로, 음양론에 바탕을 둔 수세론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회연서원은 물과 산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 곳에 자리한다. 이는 산수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풍광을 이룬 곳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였던, 당시 유학자들이 추구하던 이상향을 현실 속에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이라 한다.

- 31) 結은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혈 앞 명당 한 곳에 모두 모이는 것을 말한다.
- 32) 穿은 빠르게 직류하는 물이 명당을 뚫듯이 깨고 나가거나, 청룡이나 백호 한쪽이 움푹 들어가 마치 팔뚝을 뚫고 물이 곧바로 흐르는 형세를 말한다.
- 33) 割은 혈장 아래 혈 앞에 순전이 없어 남아도는 기운이 없는 허약한 혈장 아래를 사나운 물이 흐르면서 그곳을 할퀴고 깎아 내리며 나가는 것이다.
- 34) 箭은 물의 흐름이 마치 쏜 화살같이 곧고 급하게 빠른 것을 말한다.
- 35) 射는 급류가 혈장의 중심을 찌르거나 또는 화살같이 빠르고 날카로운 물이 마치 혈장을 찌르듯이 들어오는 물을 말한다.
- 36) 『雪心賦』「論水法之要」：交鎖織結 之宜求 穿割箭射 之宜避.

4. 회연서원의 좌향

건축물의 좌향 설정은 어느 하나만의 요소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다. 여기에 남향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인식도 크게 고려된다. 더 나아가 이기론에 바탕을 둔 坐向論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여기에는 入首龍과 得水 그리고 破口處가 서로 어우러져 가장 타당성을 갖는 좌향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理氣論에 바탕을 둔 坐向選擇法은 시대적으로 항상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 좌향론은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기존 향법론의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向法論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향법론은 일정부분 타당성을 바탕으로 진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언제나 완벽함을 갖지는 못하였고 새로운 향법론을 필요로 하였다. 물론 선택은 당시의 풍수가와 사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조차도 당시 향법론이 갖는 한계성을 인식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풍수가들은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성을 추구하였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향법론은 모든 풍수가들에 의해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룩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 기존의 논리에 추가적인 논리를 더함으로써 창조되다보니 한계성은 분명 존재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이기론에 바탕을 둔 향법론은 서로가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풍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비판론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는 주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여러 비판을 받는 향법론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논리를 통해 새로운 향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조선시대를 풍미한 향법론은 호순신의 지리신

법이다. 지리신법은 입수1절용과 득수와 파구를 따져 좋은 방향에서 득수하고 흉한 방향으로 파구되어야 길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항법을 구성하였다. 회연서원도 조선시대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던 호순신의 지리신법의 항법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는 가능하다.

<표 1> 회연서원의 『지리신법』 적용 여부 검토결과

구 분	入首龍	入首龍 大五行	坐向	得水			破口			附合 與否		
				胎	九星	吉凶	胎	九星	吉凶			
회연서원	乾(左)	金	亥坐巳向	申	官	武曲	吉	甲	胎	祿存	凶	0

회연서원의 좌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입수룡은 左旋 乾龍이다. 대오행은 金局으로, 수법을 적용하여 보면 申 득수에 甲 파이다. 申 득수 방위는 포태법으로는 官에 해당되고 구성은 武曲에 해당되며, 甲 파구는 포태법으로는 胎에 해당되고 구성은 祿存에 해당되어 ‘길한 방위에서 득수하고 흉한 방위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地理新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회연서원은 당시에 유행하던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적용하여 좌향을 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호순신의 지리신법은 폭넓게 퍼져 있었고 활용성을 담보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 셈이다. 즉, 궁궐을 비롯한 왕실의 중요 시설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서원을 건설하는 데에도 적용하였다는 점이 확인한 셈이다.

IV. 회연서원의 입지환경과 풍수해석

본 연구의 대상인 회연서원 입지의 특징은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보편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왜냐하면 16세기 이후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세속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 은거하면서 자기 수양을 위한 수련과정을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이들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성리학을 통한 삶의 바른 태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때 선비들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선택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집터에 대해서는 고금선현의 향적을 참고해서 장소가 갖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노력하였다. 송대의 朱子가 만년을 지냈다는 복건성의 武夷九曲과 武夷精舍는 조선 선비들이 하나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³⁷⁾ 이에 한강정구도 朱子의 무이구곡을 모방하여 대가천에 武屹九曲을 개창하였고, 회연서원은 무흘구곡³⁸⁾ 중에서 제1곡에 해당하는 鳳飛巖을 배경으로 건설하였다. 『寒岡集』年譜에 따르면, 선생나이 41세에 “그곳의 泉石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여 작은 집을 짓고 머물러 있을 장소로 삼았다”³⁹⁾고 하였다.

중국학자인 劉伯麟도 그의 『廣東書院制度』이란 연구에서 서원의 입지론을 밝히고 있는데, 서원을 세울 때 形勝의 땅을 택하는 까닭은 다음 두

37)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1, 14쪽

38) 무흘구곡은 회연서원 뒤 제1곡 봉비암에서 시작하여 제2곡 갓말소의 절벽, 제3곡 무학동 배바위, 제4곡 영천동 선바위, 제5곡 영천동 사인암, 제6곡 유성리 옥류동, 제7곡 평촌리의 만월담, 제8곡 평촌리의 와룡암, 제9곡 수도리의 용소까지 이어지는데 그 펼쳐진 길이는 약 30km에 이른다.

39) 『寒岡別集』卷1 「年譜」 宣祖十六年癸未先生四十一歲：愛其泉石之勝 築小齋爲棲息之所.

가지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첫째는 자연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자연이 아름답고 뛰어난 경치를 지니고 있다는 일종의 천인합일적인 사상 아래서의 風水應感說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로는 인위적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서원의 위치는 잡다한 민가를 벗어나야 하고 牛馬소리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연서원은 회연초당을 바탕으로 건설하였다. 특히 한강 정구는 “산수가 좋은 곳을 선호하였다”⁴¹⁾고 하는데, 회연서원이 자리한 곳은 주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를 한강 정구는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가천 고을 나에게 깊은 인연 있거니	伽川於我有深緣
저 좋은 한강에다 회연까지 얻었노라	占得寒岡又檜淵
흰 돌이요 맑은 시내 종일토록 즐기나니	白石清川終日翫
세간의 무슨 일이 이내 마음 스며들까	世間何事入丹田 ⁴²⁾

한강 정구는 이곳에 회연초당을 건설하고 굉장히 만족해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에 20여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寒岡集』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회지 멀리 막히었고	遠隔城市
선영 가까이 모신 자리	近陪先壟
뒤로는 구릉을 등지고	後負丘陵
앞에는 늪지와 통하며	前控池沼

40)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1993, 발언, 114쪽

41) 『寒岡集』 卷4 「寒岡言行錄」 附錄 : 酷愛山水之勝.

42) 『寒岡集』 卷1 「詩」 檜淵偶吟

오른쪽은 마을과 잇닿았고	右接閭閻
왼쪽은 맑은 못 임하였네	左臨澄潭
푸른 언덕 흰 바위요	蒼崖白石
울창한 숲 무성한 풀	茂林豐草
나무하고 소 먹이기 거칠 게 없고	樵牧兩便
나물 캐고 낚시하기 모두 좋다네	採釣俱宜
못 산이 에워싸고	群山環擁
두 물길 합쳐 흘러	兩水交流
산등성이 기묘하고	岡阜奇絕
들판 트여 너른 자리	郊原平曠
남향에다 물길 등져	面陽背流
겨울엔 다습고 여름에는 시원한데	冬溫夏涼
토질이 촉촉하여 벼농사 적합하고	濕宜禾稼
들 넓어 뽕나무며 삼 가꾸기 좋다네	衍合桑麻
남촌 농부 만나 보고	南村訪索
서산 신선 찾아가네	西嶽尋眞 ⁴³⁾

위 詩에서 보듯이 한강 정구는 劉伯鱗의 주장과 동일한 생각을 담고 있다. 회연초당의 입지에 대해 ‘못 산이 에워싸고 두 물길 합쳐 흘러 산등성이 기묘하고 들판 트여 너른 자리 남향에다 물길 등진’ 곳이라고 아주 세밀히 묘사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극히 풍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풍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못 산이 둘러싸고’ 있다는 표현은 현재 회연서원 입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완비된 모습을 논하고 있다. 또한 ‘두 물길 합쳐 흘러’라는 표현을 통해 회연서원의 앞쪽과 뒤쪽을 감싸고 흐르는 물길이 합수

43) 『寒岡別集』 卷2 「雜著」 檜淵新遷二十宜

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이는 음양론의 관점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져야 길지가 된다는 논리를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 외에도 ‘산등성이 기묘하고 들판 트여 너른 자리’라는 표현 속에는, 주산과 주룡의 흐름이 逶迤起伏하며 行龍하여 회연서원의 현무봉을 이룬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특히 너른 들판은 혈처의 전면에 자리한 明堂이 평탄 원만해야 하는 원리까지도 제시하였다. 우리 전통건축의 특징은 배산임수와 남향에 대한 선호였다는 점에서 ‘南向’을 강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회연서원 지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백호는 굉장히 크고 높은 산으로 완벽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면, 좌청룡은 물길만이 있어 우백호에 비해 약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물론 좌청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산이 든든하게 막아주는 것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좌청룡 쪽에 여러 채의 건축물을 배치한 것이다. 이는 균형과 조화라는 풍수의 대전제를 현실 속에 반영한 것이다.

『寒岡集』에 따르면 한강정구는 풍수에 두루 섭렵하고 널리 통하였다⁴⁴⁾고 하는데, 그가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 건립한 한강정사와 회연초당, 무흘정사⁴⁵⁾ 등의 입지를 살펴보면, 풍수에 바탕을 두고 입지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檜淵新遷二十宜’를 통해 만족감을 표한 회연초당의 입지에는 한강 정구의 풍수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러한 회연초당의 입지를 그대로 활용한 회연서원은 한강 정구의 풍수

44) 『寒岡集』 卷3 「寒岡言行錄」 類編：先生於諸子百家及醫藥・卜筮・兵書・風水之說 無不歷略該通.

45) 『寒岡集』 한강연보에 따르면, 무흘정사는 선조 37년(1604)선생의 나이 62세에 완성되었다. 무흘정사는 성주 서쪽 修道山 속에 있는데, 泉石이 정갈하고 人家가 멀리 떨어져 있다. 선생이 이곳에 초가삼간을 세워 서책을 보관하고 편히 쉬는 장소로 삼았으나, 그 깊은 뜻은 사람들을 피해 있고 싶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인식이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회연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檜淵新遷二十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중후기에 이르자 풍수역시 관료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유교적 세계관의 틀 내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변용되어 수용⁴⁶⁾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회연서원의 공간구성은 지형조건에 순응하는 배치를 하였다. 특히 회연서원의 공간구성은 주룡의 흐름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되었다. 즉, 외삼문을 거쳐 강당과 내삼문 사당으로 이어지는 주축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 옆으로 늘어선 구조로 배치되어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⁴⁷⁾ 이와 같은 배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외삼문과 강당 그리고 내삼문을 거쳐 사당에 이르는 배치는 자칫 혈처에 사당을 배치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橫으로 배치한 것이다. 즉, 길게 늘어선 주산을 통해 혈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혈처에 강당을 배치하였다.

셋째, 회연서원은 혈처에 가장 의미 있는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즉, 회연서원은 강당인 경회당을 혈처에 입지시켰다. 이는 곧 회연서원의 중심적인 건축물이 景晦堂이라는 것으로, 혈처에 경회당을 입지시킨 배경에

46) 최원석,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담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 통권6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267쪽

47) 회연서원의 배치는 중심축이 없이 산기슭을 배경으로 사당과 강당을 병렬로 배치하였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사당으로 통하는 내삼문이 보이고 오른쪽에 관리사 건물 앞으로 난 셋문을 통해 교육공간으로 들어간다. 강당 앞에 동재와 서재가 있고 동재 뒤로 담장을 따로 두른 신도비가 서 있다. 강당 오른쪽 뒤쪽에는 별사가 마련되어 있었다.

는 한강 정구의 서원인식과 연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寒岡集』에 따르면, 한강 정구는 郭穉靜⁴⁸⁾에게 답하는 글에서 서원은 “학문에 뜻을 둔 선비를 모아 함께 어울려 강론하고 덕을 쌓으며 학업을 닦는 것이 사실 서원을 세운 본의”⁴⁹⁾라



<그림 9> 경회당 편액

고 하였다. 즉, 서원의 설립목적이 학문탐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뜻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회연서원이 지향하는 바는 학문탐구에 있었고, 이를 실천하는 핵심공간으로 강당인 景晦堂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서원의 이름과 서원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당호에서도 찾을 수 있다. 회연서원의 檜淵은 ‘회화나무 연못’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회화나무는 學者樹 혹은 선비목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학문을 장려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학문을 장려하는 나무가 어린연못이라고 한 것은 학문을 근본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강당인 景晦堂은 ‘晦庵 즉, 朱子를 경모하고 그의 학문을 따르겠다는 의미’를 간직한 당호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입구에 자리한 見道樓조차도 휴식하는 공간에 만족하기보다는 휴식하는 시간 중에도 학문의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고스라니 드러내고 있다.

넷째, 회연서원 물길의 특징적인 모습의 활용은 풍수적 이해를 바탕으로

48) 치정은 郭趨의 자이다. 호는 省齋이고, 본관은 玄風이다. 郭趨의 아우로, 한강의 문인으로, 한강보다 11년 연하이다.

49) 『寒岡集』 寒岡別集 券1「書」答郭穉靜：聚後來志學之士 相與講評進修 實建院本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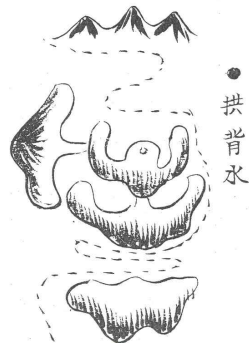
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檜淵新遷二十宜’에서 “남향에다 물길을 등졌다”⁵⁰⁾고 하였는데, 특히 ‘물길을 등졌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회연서원의 물길은 大加川으로 <그림 8>과 같이 회연서원 주산의 뒤쪽을 휘감아 도는 형상이



<그림 10> 檜淵書院의 見道樓

다. 이러한 물길을 풍수에서는 水纏玄武 또는 拱背水라 부른다. 수전현무는 물이 현무자리에 위치한다는 측면에서 붙여진 용어라면, 공배수는 주산의 뒤를 감싸 안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공배수는 주산의 뒤쪽에서 氣를 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풍수논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11> 拱背水
(출처 : 地理人子須知)

회연서원의 물길은 공배수의 역할 외에도 좌청룡의 역할까지 대행하는데, 이 또한 풍수논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 외에도 회연서원 물길의 특징적인 모습은 회연서원의 앞쪽으로 작은 물길이 흐른다. 이와 같이 앞쪽을 흐르는 물길을 명당수라 하는데, 이 또한 음양교배라는 극적인 의미의 완성을 이룬다.

이와 같은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한강 정구는 회연초당의 입지를 선

50) 『寒岡別集』 卷2 「雜著」 檜淵新遷二十宜 : 面陽背流

정하는데, 풍수이론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활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이다.

그 외에도 장소의 선택과 그 의미는 비단 풍수적 의미가 갖는 자연적 입지환경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명당 길지로서의 사회적 우위성과 차별성이 사회집단의 위계질서로 인지되고 신분에 맞춰 계층적으로 점유되었다.⁵¹⁾ 특히 조선의 사대부 혹은 유학자들은 입지선정에 있어서 자신의 신분에 걸 맞는 풍수적 가치와 차별성을 실현하였다. 또한, 입지와 경관 담론을 통해 그들의 권위를 강화하고 장소적 의미를 상징화하는 과정을 통해 배타적 입지공간을 완성하였다. 물론 이러한 인식과 현실적 실현은 한강 정구의 회연서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V. 결 론

우리의 전통교육기관이자 학문탐구의 장이었던 서원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의미 있는 입지를 선정하였고, 현대 교육기관 입지선정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전통건축의 입지선정은 풍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한 현실은 서원입지의 진면목을 살펴보는데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강 정구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회연초당에 자리에 입지한 회연서원은 한강 정구의 학문세계를 기리기 위해 건설하였다. 한강 정구는 풍수에도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회연서원의 입지를 통해 한강 정구의 풍수

51) 최원석, 「앞의 논문」, 2010, 266쪽

활용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주로 성리학탐구에 집중하였지만, 풍수이론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모습조차도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에 득수와 파구 방향에 따른吉凶論과 年運에 따른 相剋論이었는데, 이는 풍수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즉, 풍수가 갖는 논리성과 합리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입지선정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가 입지를 선정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을 살펴보면 풍수 길지에 자리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회연초당에 바탕을 두고 건설한 회연서원의 입지는 풍수논리에 다양한 각도에서 부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연서원의 주산은 이름없는 봉우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회연서원 주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으로 횡룡입수의 필수요건인 귀성과 낙산을 갖춘 모습이다.

둘째, 회연서원의 혈처에 강당인 경회당을 입지시킴으로써, 회연서원의 지향점을 학문탐구에 방점을 두었다.

셋째, 회연서원의 물길은 대가천으로 회연서원 주산의 뒤쪽을 감싸고 도는 모습이다.

넷째, 회연서원은 당시에 유행하던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적용하여 좌향을 정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호순신의 지리신법이 폭넓게 퍼져 있었고 활용성을 담보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 셈이다.

그 외에도 한강정구가 풍수관에 입각하여 회당초당 입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회연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檜淵新遷二十宜’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조선중후기에 이르자 풍수역시 관료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유교적 세계

관의 틀 내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변용되어 수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회연서원의 공간구성은 지형조건에 순응하는 배치를 하였다. 회연서원의 공간구성은 주룡의 흐름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되었다.

셋째, 회연서원은 혈처에 강당을 배치함으로써, 풍수적 특징의 완성과 더불어 한강 정구의 서원인식을 반영하였다. 또한, 회연초당이 곧 강당자리에 입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넷째, 회연서원 물길의 특징적인 모습은 풍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즉, 공배수와 청룡을 물길로 대신하는 특징적인 모습은 풍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회연서원의 입지선정은 한강정구의 풍수인식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회연서원의 입지환경과 공간구성의 풍수논리를 살펴보면, 16세기 이후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세속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 은거하면서 자기 수양을 위한 수련과정을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이들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성리학을 통한 삶의 바른 태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때 선비들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선택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집터에 대해서는 고금 선현의 향적을 참고해서 장소가 갖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노력하였다. 송대의 朱子가 만년을 지냈다는 북진성의 武夷九曲과 武夷精舍는 조선 선비들에게 있어 하나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한강 정구의 회연초당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회연초당을 계승하여 건설한 회연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는 한강정구의 풍수인식과 활용성에 대한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회연서원은 한강 정구의 서원에 대한 인식과 지향하는 바가 고스란히 실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國朝實鑑』

『錦囊經』(奎章閣本)

『道德經』(王弼本)

『宣祖實錄』

『雪心賦』(奎章閣本)

『朱文公文集』(四部叢刊初編本)

『寒岡集』

김상협, 「조선후기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1, 14쪽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1993, 발언, 114쪽

최원석,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담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 통권6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266쪽, 267쪽

한국고전종합DB.

Abstract

Location Environment and Feng shui of Hoeyeon Seowon

Park, Jeong-Hae

In this study, the chronological history and scholarship of Han-gang Jeong-Ku is examined. And features of Feng shui and logic of spatial composition in Hoeyeon Seowon are also researched. Especially, locational features of Hoeyeon Seowon are focused with the view of topographic situation and Lichi theory.

Seowon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 lecture hall for academic sermon in Korean tradition. And because of its importance, its location select was dealt with full consideration which is the same as at present. The location selection and spatial composition of Hoeyeon Seowon was to be selected from the most optimum place, by seeking and applying a propitious site based on Feng shui. Also, through reflecting academic and periodic situation, it was constructed with a small scaled building at a tranquil place which was to harmonize with nature. And it shows that with ideological base of Confucian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the 16th century, who hoped to realize the ideal world of Neo-Confucianism. Especially, they were strongly affected by the Feng shui idea of Chu-tzu, and they physically realized their ideal world such as Mu-Yi-Ku-Gok and Mu-Yi-Jeong-Sa within Hoeyeon Seowon without considering it just as an ideal one.

Key Word

Han-gang Jeong-ku(寒岡鄭逵), Feng shui, Heoyeon Suwon, Chu-tzu(朱子),
Spatial Composition

- 논문투고일 : 2014.12.20 심사완료일 : 2015.2.3 게재결정일 : 2015.2.14